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19. 4.

“**꿈**이 크는
공부방”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사도직 나눔

T. 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후원회원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자라는 아이들이 있는 ‘꿈이 크는 공부방’입니다. 항상 마음과 기도로만 감사인사를 드렸는데 소식지를 통해 직접 인사 드리게 되어 기쁘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는 농촌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1994년 9월, 안동 교구 화령성당 관할지역에 성모성탄 공동체를 설립하여 농사, 농촌 일손 돕기, 가정방문 등을 해 왔습니다. 농민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바쁜 일손 탓에 방치되어 있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2006년 7월에 상주시 화동면에서 “꿈이 크는 공부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화동공소 교우들의 요청으로 시작되어 많은 협조를 받아 보금자리를 얻었고 아이들은 자기들만의 공간이 생긴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게 두 해를 지내다가 저희의 선한 뜻에 마음을 더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덕분에 모서면의 땅을 매입하여 아이들을 위한 공간을 짓게 되었습니다. 농촌의 특성을 살리고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거듭한 끝에 완성된 공부방은 2008년 5월 24일에 축복식을 하였고 오늘날까지 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워왔습니다. 파괴된 가정이 많아지고 다문화 가정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현재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17명의 아동 중 14명이 이에 속하는 가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우선적으로 파견되는(회현 4항) 수도회의 정신에 따라 사랑이 더욱 필요한 아이들에게 먼저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적, 문화적인 환경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하며 그들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이 저희의 꿈입니다. 이렇게 자라날 때, 하느님의 모상성을 온전히 살 수 있게 테니까요.

도시에 비해 인구 수도 적고 평균연령도 높고, 또 모두가 농사를 짓기 때문에 봉사자를 구하는 일은 참 어렵지만 이 지역으로 귀촌하신 영적가족의(분명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천사이십니다.) 한결같은 봉사가 아이들의 학습교육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것에 눈이 반짝거리지요.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멀리서 한 달에 한 번씩 방문하여 맛있는 간식을 만들어 주시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함께 어울려 주시고, 오카리나를 가르쳐 주시는 봉사팀 덕분에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꿈이 크는 공부방'은 100% 후원회원님들의 도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나 시의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한 이유는 지원을 받으며 그들의 요구에 응해야하는 에너지를 아이들과 한 번 더 눈을 맞추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한자락이라도 더 듣는 데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저희의 든든한 힘이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거듭 감사드립니다!

지금 농촌은 밭 준비를 마치고 씨를 뿌리느라, 또 과실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게 준비하느라 분주합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 해도 자연의 섭리에 따를 수 밖에 없는 것이 농사이기에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연의변화에 따라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어야 하므로 '때'를 잘 맞추어야 하거든요.

'어린이'라는 시기를 지내고 있는 모든 아이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어른들의 보호아래서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자신의 삶을 보다 성숙하고 주체적으로 가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사정으로 부족한 점들을 이렇게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후원회원님들의 마음과 사랑이 채워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는 하느님의 사랑을 살고 계시는 후원회원님들의 마음을 아이들에게 전하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우리 아이들의 꿈이 어제보을다 한 뼘 더 자라기를 기도하면서요.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가장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마태 25,40)

🍃 수녀원 소식

어울림센터 축복식이 3월 23일 개봉동에서 있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이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해 마련된 센터입니다.

센터에서는 만남을 비롯한 학습, 상담치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축복하노라>

좋은때 좋은날 축복하소서
하나된 맘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하소서 우리의 새 꿈터
축복하소서 한반도 평화를

*북한노래 '축복하노라'를 축복식에 맞추어 친구들이 개사한 곡.

🍃 기도해주세요

- 박근제 요셉님께서 현재 혈액암으로 투병 중에 계십니다. 어려운 치료를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 이근호 요셉님께서 4월 1일 지병으로 하느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길 기도드립니다.

자동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